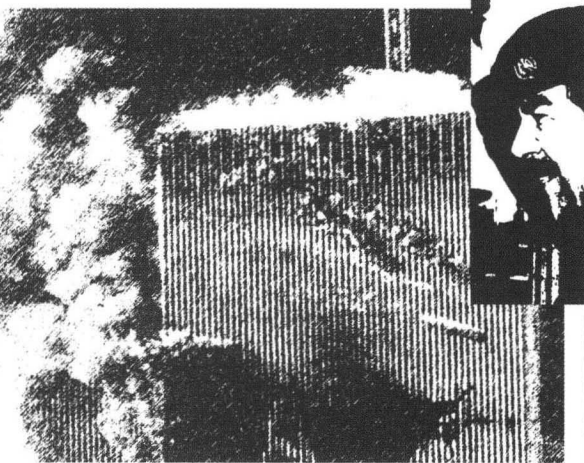


책이 펼친 올해의 키워드,

테러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테러의 세 가지 얼굴

●

2004년은 '테러의 해'였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테러는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서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불행히도 명분 없는 전쟁으로 테러를 뿌리 뽑기는커녕 그 전선을 지구촌 전체로 확산시켜버렸다. 9·11 테러의 배후 핵심인물인 오사마 빈 라덴은 보란 듯이 건재를 자랑하고, 민간인을 겨냥한 자살폭탄테러가 일상화되었다. 명분과 대중적 지지기반을 잃고 와해돼 가던 테러조직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부활하여 미국과 관련시설에 대한 폭탄 테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에 3,800명의 군대를 파병한 한국도 테러 대상국이 되면서, 김선일 씨 참사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때 아닌 테러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미국과 협조하는 모든 세력이 반미 테러조직들의 타깃이 되었기 때문이다. 5천년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특이한 상황이다.

테러는 세 얼굴을 가졌다. 저항 능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는 일체의 폭력행위를 테러라고 정의한다면, 일부 이슬람 폭력조직이 자행하는 민간인 테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슬람은 민간인을 겨냥한 어떤 폭력도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공할 첨단무기를 동원하여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의 폭력과 이라크인들을 향한 미군의 잔혹한 고문과 학살행위도 당연히 근절되고 비난받아야 할 국가 테러다. 한편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자유를 위한 투쟁도 서구는 테러로 간주한다.

동시에 테러는 원인제공에 대한 필연적 반응이다. 3,000여 명의 시민들이 희생당한 뉴욕 무역센터의 참혹한 테러현장에서 미국인들이 경악하고 분노와 슬픔을 보이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아랍인들은 지난 50년간 이스라엘의 테러로 숨진 수만 명의 형제와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짓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그를 비호하는 미국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부당한 미국의 폭격으로 희생당한 가족들은 그 순간 잠재적 반미 테러리스트로 돌변하게 된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다.

서구는 테러의 1차적 책임이 이슬람 내부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서구가 그 증오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면 그 증오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서구는 지배적인 강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다. 서구자신의 보호와 번영을 위해서도 이슬람 세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 세계의 최강자로서 빼앗긴 자의 아픔과 약자의 응어리에 귀 기울이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 테러 비용의 10 퍼센트만이라도 삶의 원초적 권리와 경제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지원한다면 테러 원인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냥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인류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9·11 테러는 분명 가진 자와 빼앗긴 자의 간격을 좁히려는 문명사적인 메시지가였다.

테러는 현재 진행형,
비판과 자성 보여준 테러관련 책 봇물

정리 | 출판저널 편집부

‘행동하는 지성’으로 반테러를 주창하는 노암 촘스키의 저작들이 주를 이뤄 출간됐다. “불량국가는 바로 미국”이라는 도발적인 발언처럼 성역을 두지 않는 촘스키의 거침없는 비판은 테러 시대 전지구적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해적과 제왕 : 국제 테러리즘의 역사와 실체》**(노암 촘스키, 황소걸음)는 촘스키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언론과 학술지 등에 기고한 글들을 담고 있다. 국제테러리즘이 극에 달했던 1980년대에 발표한 글과, 9·11테러 이후 미국이 전개한 대테러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최근 상황에 관한 글을 담고 있다. 타계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주목된다. 촘스키는 미국 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수호자라 평가받는 레이건을 침략과 테러를 총지휘하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테러범이며, 강자의 편에 서서 세계를 경영한 ‘빅브라더’라고 일갈한다.

《권력과 테러 : 노암 촘스키와의 대화》(노암 촘스키, 양철북)는 촘스키의 강연과 인터뷰를 담고 있는 책으로, 전쟁과 테러의 본질, 국제정치와 세계 권력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촘스키는 중동, 베트남,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미국이 직·간접으로 지원한 전쟁과 테러를 예로 들며 미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와 위선을 강하게 비판한다. 미국 주류언론을 향한 비판은 더욱 매섭다. 미국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들인데, 언론은 이것을 지적하기는커녕 그 이익을 공유해 왔다고 고발한다.

촘스키의 반테러 주장에 하버마스과 데리다도 힘을 더했다. **《테러시대의 철학 :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지오반나 보라도리, 문학과지성사)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제 질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테러 시대로부터 탈출은 가능한가 등 전반적인 물음에 충실하게 답한다. 국민국가를 전제로 삼고 있는 고전적인 국제법으로부터 대륙적 차원의 동맹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계시민주의적 질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두 지성은 합쳐진다. 책의 말미에 실린 하버마스와 데리다의 공동선언문〈우리의 혁신 : 전쟁 이후, 유럽의 재탄생〉도 읽을거리다.

《모던 지하드 : 테러, 그 보이지 않는 경제》(로레타 나폴레오니, 시대의창)는 ‘테러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흥미로운 책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인 저자는 오랜 기간 동안 수천 건의 문서를 분석하고 관련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질서 ‘테러 신경제’의 실체를 밝혀낸다. 콘트라스에서 알 카에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무장 단체들에게 끊임없이 자금을 제공하는 서구 경제체제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난 것. 저자는 ‘테러 신경제’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무기와 마약 거래, 석유와 다이아몬드 밀수 등에서 나온다고 밝힌다.

《아부 그라이브에서 김선일까지》(슬라보예 지젝 외 공저, 생각의나무)는 바우만, 지젝, 도정일, 박노자 등 국내외 지성 24인이 묶어 낸 책이다. 책이 갖는 각별한 의미는 지금 이곳의 테러문제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선일 사망 사건’과 관련, 한국사회의 문제를 짚어낸 ‘자성의 목소리’는 그 울림이 깊다. 파병 논쟁의 허실을 짚고(진중권), 죽음에 대한 애도의 정치로 점철된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전망을 해보며(서동진), 미디어가 사건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살피는가 하면(이상길), 테러리즘을 이슬람 배타주의로 확대시키는 한국 기독교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한다(김두식).

테러시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테러시대가 전면적으로 등장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만큼 성찰을 갖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자책만이 유일한 자성이었다. ‘유일한 자성’을 반성케 하는 테러 관련 책들의 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시 재임과 관련해 테러 시대의 불온한 방향이 궁금한 독자에게 노암 촘스키의 책을 권한다. **출판저널**

